

매화는 반만 필 때 운치가 있고, 벚꽃은 활짝 피어야



라고...’ 그러셨어요. 뭔가 이름도 알려주셨는데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길옆에 핀,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던 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참 곱더라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식귀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보면 스크린 도어에 가끔 시를 하나씩 써놨잖아요. 어느 날 ‘벚꽃’이라는 시가 번쩍 눈에 띄었어요. 제목이 들꽃이라, 어른스님한테 자주 들었던 얘기가 있었으니까. 문묘치란 시인이 쓴 시인데 간단해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피네. / 누가 보거나 말거나 지네. / 한마디 말없이 피네. 지네.’ 아무튼 참 시인이 대단하다 생각했어.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뿐이라는 말이잖아요. 진리예요. 불법佛法을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 나한테 이런 시를 만나는 행운이 찾아오다니 그것도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서...’ 필기도구가 없어 가, 핸드폰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잊어버리기 전에 일련 정리해 함께 서예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프린트해서 들렸어요. 인생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다보니 모두 감탄을 하는 거라. ‘아! 좋다고.’ 그런데 체육관에 같이 다니는 젊은 사람한테 주니까 반응이 별로야. 삶이 무르익어와 비로소 와 닿는 이야기를 철부지들이 어찌 알겠나 싶더구만.’ 피카소는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그리기까지 50년이나 걸렸어.

“스님은 우리 나무나 꽃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봄이 되니까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꽃이 피니까 봄이 온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스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범문이고 시예요. ‘매화는 반만 피었을 때 운치가 있고, 벚꽃은 활짝 피어야 화려하냐 여하가 없다. 복사꽃은 멀리서 봐야 제대로 누릴 수 있고, 배꽃은 가까이서 볼 때 그 맑음과 뚜렷함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셨느냐 말이에요. 스님 말고도 오천만 국민이 다 봤는데, 몰랐잖아요. 스님 눈에 어떻게 그런 게 다 보이시는지 참.’ 무엇보다 허투로 보는 법이 없으셨던 법정 스님은 늘 알아차릴 가운데 계셨어.

법정 스님과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할머니, 어머니가 모두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그러니 모태신앙이라고 봐도 될 거야. 자연히 우리 집 사람도 따라다녔어요. 고부가 완전히 불교에 흠뻑 빠져서요. 그렇지만 나는 분위기만 찾아있었지 절에 잘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어느 날 (무소유)를 비롯한 스님 책을 몇 권 가져다 줬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길상사엘 가게 됐어요. 어느 날인가 법당에서 나오니까 집사람이 거사님 입회신청을 딱 해놓은 거라. 그 뒤로 일요일엔 어저간한 일은 미루고는 길상사로 가는 일을 1순위로 삼았어요. 거사님 회원이 되고 처음 돌아온 사월초파일 날 거사님 회장이 나보고 어른스님 외호를 맡아달라고 해서 스님과 인연이 시작되었지요. 오시는 시간부터 가실 때까지, 행차실에서 면회객들도 통째로 하고, 나중에는 아예 중무소에서 주차장 키도 나한테 맡겨놓고 그랬어요.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행사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오시면 안내

법명이 완연하고 벚꽃잎이 눈발처럼 날리는 4월 중순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신춘은평회초전시장에서 법정 스님 길상사 법회 때마다 10년 넘도록 스님을 의호했던 벽파홍기 홍기는 거사(71)를 만났다. “처음모실 때는 굉장히 간간하셨어요. 부처님 오신날 극락전 앞에 처마 좌우에 큰 연등을 걸잖아요. 그 연등에다가 ‘법정 대화상’이란 표리를 달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스님께서 보시고는 ‘저거 왜 달았어?’ 그러세요. ‘모르겠습니다.’고 말씀드리니 ‘때여요.’ 이러시는 거라. 난처해서 ‘스님들이 불이신 걸 제가 어찌 뵈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손수 때어버리셨어요.” 세상에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어디있나시던 어른이니 마음이 편치 않으셨으리라. 풀 먹인 모시적삼처럼 손을 스치면 베일 것처럼 자신에게 엄격한 어른이었다.

“처음에는 주차장에서 행차실로 모시고 갈 때 그냥 별 말씀 없이 두부부씩 걸어가지거나 ‘여기는 벌써 꽃이 피네?’ 하면서 한 두 마디 겨우 입을 떠딘 어른이 날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그 날카롭던 성격이 많이 누그러지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얘기도 하

고, 웃기도 하시면서 살가워지셨어요. 2008년도인가? 행차실 문 앞에 있으니까 외호하던 사람들 몇몇이 함께 들어오라고 부르셨어요. 나보고 당신 왼쪽에 앉으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는 거야. 몸이 편찮으셔서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셨지만, 내색을 안 하셨어요. 뭐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감히 어머니가 여쭙볼 수도 없고 그러던

웃어, 웃어! 동네어르신처럼
부드럽고 도타웠던 어른스님

차에 부르셔서... 어렵고 조심스런 어른이 사진을 찍을 때 ‘웃어, 웃어!’ 그러시면서 부드러운 동네어르신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님은 늘 상대 처지를 헤아리셨다. 이런 걸 불편해 하는구나. 이러면 좋아하는구나 싶으면 바로 당신을 맞추셨다.

“어지간하면 길상사를 빨리 떠나시려고 하셨어요. 빠를 때는 점심공양 끝나고 바로 가시기도 하고,

언젠가? 사월초파일 길상음악회를 하던 날. 늦게 끝났어요. 그 바람에 밤 열한 시 넘어서가셨어요. 그런 날은 주무시고 가실 만도 한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늦어서 너무 피곤하실 텐데 운전이라도 제가 해드릴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안돼!’ 그러시더라고요. 밤 열한 시가 넘어서 가셨는데 몇 시나 돼서 도착하시겠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길상사를 빨리 떠나시려고 하는 까닭을 급한 성정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정작 까닭을 알고 보니 깊은 생각 끝에 나온 결단이었다. “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더군요. ‘한 절에는 주지가 둘이 있으면 안돼요. 아니 할 말로 나 보러오지, 주지 보러오겠어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주지가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고. 당신이 있으면 절사가 서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어요. ‘마음은 뛰는 게 아니라 쓰는 것’ 이라던 당시 말씀처럼 마음씀이 남다르셨지요.” 결국 법정 스님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어쩔 수 없이 길상사에서 하루를 묵으셨다.

“강원도에서 손수 차를 몰고 오시니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남이 모는 차를 타도 힘이 드실 연지에, 어떤 때는 청량당에 모셔서 한두 시간 쉬게 해드렸어요. 행차실에는 손님이 자주 찾아오니까. 차를 몰고 먼 길 가실 생각을 하면 손님이 찾아왔다고 차마 말씀드리기 어렵더군요. 그래서 스님께서 잠깐 바깥나들이를 나가셨다고 돌려대곤 했어요. 그렇게 쉬고 나시던 한결 몸이 가벼워하신가 봐요.” 나이 들

늦어도 강원도로 떠난 뜻은
“절에 주지가 둘이면 안 돼”

어가는 스님을 곁에서 뒤편에서 느끼던 안타까움이 깊이 배어나는 벽파 거사 눈매가 그윽하다.

“한 번은 행차실 올라가시다가 길옆에 핀 야트막한 꽃을 보고 ‘벽파 거사 이게 무슨 꽃인지 알아?’ 물으셨어요. 조그맣고 땅바닥에 붙어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고 말씀드리니, ‘불꽃이지? 가까이 들여다봐요 보이니까. 가장 순수하면서 끈질긴 들꽃이

천도재·예수재 용품은 동진기획·붓다쇼핑에서...

그동안 동진기획·붓다쇼핑을 찾아주시고 구매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가 1,000원
· 구성 : 금강경다라니, 지장경다라니, 아미타경다라니, 신묘장구경다라니, 천수다라니, 개팔전, 상평통보, 만관, 신묘장구대다라니, 지전, 봉투

중이영가옷 (남자/여자/동남/동녀/수자)

A형-남	A형-여	B형-남	B형-여
정가 1,500원	정가 1,300원	정가 1,200원	정가 1,100원
C형-남	D형-여	동남	동녀
정가 1,200원	정가 1,100원	정가 1,000원	정가 1,000원
수자영가옷	예수재합A (50개 1박스)	부모은중경 목련경	
정가 800원	정가 50,000원 (150개 이상)	정가 4,000원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금강경타다라니	한지점은 영가옷/위패	종이신발(남/여) 1켤레
정가 250원	100개 30,000원	할인가 1,300원
할인가 180원 (600개 이상)	· 크기 : 53x180mm	정가 1,600원
축원카드 칼라	자비도량참법(세로)	금강반야바라밀경
축원카드 금강(가로/세로)	할인가 9,000원 (20권 이상)	할인가 1,800원 (100권 이상)
할인가 60원 (2,000장 이상)	정가 15,000원	정가 3,000원
정가 10,000원 (100매)		
· 크기 : 268x190mm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탈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121068-56-042256 ◆우체국: 612416-02-031008 [예금주: 강태규]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으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역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해 드리고, 원불교 교무님이나 수녀님들이 오시면 또 그 카고, 그러다보니가 어른스님 둘레 분들은 대강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3박4일 여름 선 수련회를 두 번 동참했어요.” 처음 수련회 때 ‘벽파磬城’라는 법명을 받았다. ‘푸른 언덕’, 법정 스님 출가에 앞서 쓰던 호가 ‘청산靑山’이었던 걸 떠올려보면, 각별하다. 그 각별한 푸름 때문일까? 벽파 거사가 늘푸른 군인들을 위해 군포교에 나신 지 12년이 넘는다. “우리 막내가 공군 출신 아니요? 그 애가 군에 있을 때 일요일이면 어디 갈 때가 없었으니까 군법당엘 가서 천수경하고 반야경을 다 외운 거라. 군법

법정스님을 만난 행운아
스님! 그리워서 그림이다

회가 군인들을 오리지널 불자들을 만들거구먼. 막내 때문에 군포교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우리가 군법당 다니는 일은 진짜 잘 하는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벽파 거사는 지금도 둘째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국군병제병원에 있는 군법당, 자견사自見寺를 찾는다.

입적하신 날이 3월11일 목요일 벽파거사가 서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사 한 분이 어른스님이 삼성병원에서 길상사로 출발하신다고 전화가 왔다. 단걸음에 길상사로 달려갔다. 그 때가 오전12시 반. “2시다 되서 길상사 범종이 울렸어요. 한없이 울었죠. 다 비석 끝날 때까지 집엘 들어가지 못했어요.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장사익씨 노래 ‘봄날은 간다.’ 가 나오네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어른스님 생각도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거 어떻게 좀 꺼내야 하는데, 스님 생각만 하면 눈물 바람을 해요. 스님이 내가 이렇게 집착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건데, 스님이 ‘벽파 너무 집착하지 마. 나, 별나라 어린왕자하고 같이 잘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시면서 보고 계시실 것 같아요.” 부처님얼반도를 보면 제자들은 물론 사천왕들도 이젠 외호할 부처님이 안 계시다는 슬픔에 땅을 치고 통곡한다.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린 게 그림이고, 그림 솜씨가 없는 사람이 궁리 끝에 만든 부호가 글씨라는데 떠난 분을 그리워하는 인 지상상이 아닐까.

벽파 거사는 제8회 신촌은평회대회에서 일반부 한글부문을 대상을 뒀다. 서예공부 3년 만에 이룬 쾌거로 가르친 선생을 비롯해 둘레 분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는데... “저하고 같이 서예를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한문서예를 했어요. 그런데 저만 유독 한 글서예를 했어요. 스님 글 ‘미리 쓰는 유서’를 보면 ‘내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누가 뭐라고 한대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어른스님을 떠올리면서 한글서예를 했어요. 스님은 말씀도 참 쉽게 하세요.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 우리 식구는 ‘똥 빈 총만’ 이 말에 반했대요. 어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너무 말이 멋지다 이거야. 똥 빈 건데 ‘총만’ 이라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그게 공소이다 공.’이라고 했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스님이 한글을 아름답게 빛내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셨어요. 세종대왕께서도 반가우셨을 거야.” 만남은 눈빛이다. 친구는 내 부름에 대한 응답. 맑음은 개인의 정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타리를 뜻한다. 처럼 스님께서 풀어내신 주옥같은 표현들



벽파 거사가 이제야 뒷집을 쫓다. 법정 스님이 길상사에 오실 때 마다 거사는 주차장에서 행차실로 또 행차실에서 극락전으로 모시며 항상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말이다. 일흔을 넘겼으니 뒷집을 쫓던 것도 하건만 항상 공손한 모습을 뒀던 내게는 생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련과 법당의 기둥을 번갈아 보는 그의 눈빛이 아쉬움에 가득 한 것 같아서 스승의 빈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나온 회상의 몸짓이었음을 아내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 셀 수 없다.

“우리 집 보살이 가끔 ‘당신은 법정 스님을 만났게 참 행운이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암. 행운이지 당신 때문에 다 그리웠으니 당신이 내 생애 최고 행운이자 선물이지. 당신이 스님과 엮어주시셨으면 내가 무슨 복에 스님을 보았겠어?’ 그러지요.” 은근히 당신 복밭을 자랑하는 팔불출 벽파 거사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진다.

“법정 스님쯤 되시면 대단히, 우리하고 다른 큰 뭔가가 있지 않겠나? 여기는 데 격 없이 소탈하고 누구한테든지 편안하게 대하시곤 했어요. 뭐랄까? 아주 평범한 농부처럼 꾸밈이 없으세요. 이 시대 큰 어른이셨지요. 꼭 어떤 뭘 배우지 않더라도. 스님이 세상에 계시는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울림이었잖아요. 현장 스님 말따마나 한국사람으로 태어나서, 티베트 스님처럼 사시다가 인도스님처럼 가셨어요. 스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죠.” 법정 스님 입적 뒤에 더 열심히 길상사에 나가고 말고

항기롭게 화원 만남의 날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벽파 거사. “스님께서 길상사를 10년 동안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시다가 ‘그럼 말고 항기롭게 활동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 는 말고 항기롭게 화원을 얘기를 받아들여 길상사가 생겨났잖아요.” 법정 어른스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깊어, 우짜든지 ‘말고 항기롭게’와 ‘말고 항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스님 뜻을 잘 받들어 말고 항기롭게 거듭나는데 힘을 보태는 게 당신 뜻이라고 여긴다는 벽파 거사, “새는 머리가 날개로만 날지 않고 온몸으로 난다.”며 말씀을 거둔다. 이 말씀 끝에 조계종근종특별교구장을 지내셨던 일면 스님 말씀이 떠올랐다. “느그는 주불主佛해라! 난 후 불명화할 테니.”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새가 날면 깃털이 떨어진다



봄 가을로 대부분의 학회가 개최된다. 그 가운데 한국선학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정보도 교환하는 유익한 자리이다. 그날따라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진지하고 의욕이 넘쳤다. 학회에서 매년 느끼는 면면이 있다. 그것은 모순이다. (한비자) 난(難)이란 편에 나오는 말이다. 모순(矛盾)은 창과 방패란 말이다. 그런데 그것이 대립이란 뜻으로 쓰이지 않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말이나 행동을 말한다.

초(楚) 나라에 한 병기 장사꾼이 있었다. 그는 창을 들고 ‘자아,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아무리 어물고 단단한 것이라도 단 한 번에 꿰뚫고 뚫는다’ 라고 자랑했다. 그러자 하면 방패를 들고 선전할 때는 ‘자아,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리 날카로운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한 번 찔러 보시오. 그러면 그 결과가 어찌 되겠소?’ 장사꾼은 대답이 궁해지고 말았다.

모순이란 자기당착(自家撞着)과 같은 말이다.

히 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거친 어투로 대중의 고요한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무슨 심사일까.

(벽암록) 제29칙의 내용을 보고자 한다. 물고기가 헤엄치면 물이 흐려지고 새가 날면 깃털이 떨어진다[魚行水濁 鳥飛毛落]. 이렇듯 평범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주인과 손님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흑과 백을 환히 나누어 본다면 바로 맑은 거울에 사물이 비추듯이 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손바닥 안에 야광주가 있듯이 원전자재(圓轉自在)로 구르게 되어 한인(漢人)도 호인(胡人)도 다 비치고 소리나 빛깔로 야광주의 진짜를 다 알아낸다.

(벽암록)에서 시사하는 점은 깨달음에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수행자가 그림자를 떨치지 못하면 더욱 위험한 일이다. 이름이란 그림자, 연분이란 그림자, 상(相)의 그림자 말이다. 상의 극복이야말로 공부의 절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도가 터진다, 도를 깨닫는 말을 하는데 도란 물건이 깨어지듯이 뭉치가 깨진대거나 풍선이

상(相)의 그림자 떨쳐야 도 깨친다

형상도 없고 무게도 없는 마음공부도 그 공부가 여윌지 아닌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필히 거쳐야하는 과정이 있다. 즉 점검(點檢)이다. 여기서 점검이 검 모두 조사한다는 뜻이다. 선사는 수행자의 소질 뿐만 아니라 능력이나 역량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인가의 과정이 따른다. 범어로 수행을 pratipatti 라고 한다. ‘연는다’ 든가 ‘확신’이란 뜻이 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혹은 ‘무엇이 이루어 졌는가를 아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학문의 세계에서 검증이란 더 철저한 지도 모를 일이다. 교육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나태함이 보이면 이내 경책이 따르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다. 호리유자하면 천지현격이란 승찬 스님의 가르침은 모두 학문세계나 정신세계의 수련자들에게 통용되는 불변의 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학회에서 한 발표자의 글과 태도를 보고 느낀바가 많았다.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다 가릴 수는 없다. 학회는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곳이 아니고 나의 학문세계를 대중 앞에 적나라(赤裸裸)하게 드러내어 대중으로부터 정교도 같은 자리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충실

‘땡’ 하고 터지듯이 뭉치가 터지는 것을 도를 깨닫는 것으로 착각하여 살고 있거나 않는 지 각자의 성찰이 필요하다. 아마 우리는 옛 선사들의 표현 방식에 착각을 일으키고 ‘터진다’ 느니 ‘깨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음알이에 집착하여 알음알이에 머무르면, 그 알음알이가 ‘나’를 망친다. 알음알이를 형상화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이 여기에 있다.

필자는 마음이 클수록 산에 오른다. 산이라야 생활 주변에 있는 인왕산이나 남산이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큰 준비 없이도 쉬 오를 수 있어 좋다. 기운이 많이 올라 재능이 산들 산들 불면 심호흡으로 시원함을 만끽하곤 한다. 계절은 절기에 따라 적절한 선물을 무진장 쏟아내곤 한다. 받아쓰는 것은 오직 인간의 몫이다. 바쁜 일상에서 회향상인(回向上人)의 삶을 그리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단 산속에 들어가도 쉬어감, 여유, 반추는 우리를 회향상인의 유유자적한 삶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상의 나무쟁이는 떼어내기가 쉬우나 마음의 나무쟁이는 보이지 않아 떨치기가 만만치 않네.

동국대 선학과 교수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하여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몰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기에 폐문(체온) 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제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특제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미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트스크 B.C.P 내장하여 45도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반신욕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활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명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물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납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형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료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웃나무 진액 참웃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웃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웃에도 고품질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웃을 만들었습니다.

▶웃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웃 산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웃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웃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